

尹 東 柱 論

교양과 이 병 문
전업강사

目 次

- | | |
|-------------|-----------|
| I. 緒 論 | (1) 抵抗의 詩 |
| II. 本 論 | (2) 豫言의 詩 |
| 1. 尹東柱의 生涯 | III. 結 論 |
| 2. 尹東柱의 詩世界 | |

I. 緒 論

韓國의 現代文學史에서 그 흐름을 더 많이 는 외부로부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10년 8월 國恥 以後 1919년 3월 온 나라 겨레가 일어나 피땀히도록 祖國光復과 祖國獨立을 絶叫하였고 민족解放을 絶叫하였지만, 바로 이 무렵 이러한 祖國現實의 적나라한 모습을 민족文學으로 昇華시켜 남긴 作家도 作品도 흔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는 日淺한 韓國의 現代文學史의 理由도 크겠지만, 西歐의 외래문학思潮의 소화불량적인 理由도 있었다. 西歐의 외래문학사조의 수입도 좋았고, 그 理論의 전개도 좋았지만, 그것들보다는 祖國의 운명이 日本帝國主義의 식민지政策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는 現實認識의 不在를 들어서 作家나 詩人에게 그들의 使命感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平和로운 時代에 있어서 詩人의 存在는 가장 비싼 文化의 장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詩人이 처해 있는 國家가 비운에 빠졌거나 統一을 잃었거나 하는 때에 있어서, 詩人은 그 비싼 文化의 장식에서 떠나, 혹은 예언자로, 또는 민족魂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이 현구의 詩人의 使命에서)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의 단테처럼, 폴란드의 베르하렌처럼 민족의 예언자로 조국의 신령으로 추앙을 받았던 예도 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민족, 우리 조국에게도 <님의 침묵>의 만해가 있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상화가 있고, <광야>의 육사가 있고 <그 날이 오면>의 심훈도 있다. 祖國이 日本에게 빼앗기었다는 이 강렬한 意識은 곧 민족 의식이요 日帝에 대한 항거의식의 거점이 되었다.¹ 이 무렵의 詩人으로는 倭地의 옥중에서 비운으로 숨져 간 詩人 尹東柱를 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밤이 깊어 갈수록 별빛이 찬란

¹ 문덕수, 한국현대시론, 한국문학총서 2(서울: 선명문화사, 1974) p.260.

하듯 日本帝國主義의 식민지정착이 노골화되어 갈수록 민족주체의식이 굳게 다져져야 하는 時代的 要請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 詩人의 價値가 날로 밝혀져 가는 데 따라서, 既成의 文學史의 내용을 새로 써야 하게 될 만치 그 存在는 뚜렷해져 가고 있다²는 것이다.

“詩人은 진실로 우리 가운데서 자라난 한 포기 나무다. 淸明한 하늘과 적당한 온도 아래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고, 長霖과 曇天 아래서는 험상궂은 버섯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이한 植物이다. (중략) 그는 가장 강렬한 生命에의 意志를 가지고 빨아올리고 받아들이고 한다”.(박 용철의 詩的 變容에 대하여) 淸明한 하늘과 적당한 온도 아래가 平和로운 시대 상황이라면, 장림과 담천 아래는 自由와 平和와 主權을 강탈당한 식민지祖國의 現實狀況이라 할 것이다. ‘험상궂은 버섯’은 곧 민족의 선구자로 민족의 예언자로서 민족문학을 지키려던 ‘레지스탕스시인’, ‘저항시인’을 두고 일컬음임에는 틀림이 없다.

가장 어렵고 고약한 시대에 태어나서 또 그런 시대를 살다간 尹東柱를, 먼저 그의 生涯를 찾아보고, 다음에 그의 遺作品인 詩를 통해서 선구자의 혼과 저항의 몸부림과 예언의 소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尹東柱의 生涯

① 尹東柱는 1917년 12월 30일(음력 11월 17일) 만주국 간도성 화룡현 명동촌(滿州國間島省和龍縣明東村)에서, 坡平이 貫鄉인 尹永錫씨와 金龍여사와의 사이에서 3男1女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났다.

尹東柱는 兒名이 海煥이었고, 靑少年시절의 筆名이 童舟이었고,³ 本名은 東柱이었다.

尹東柱의 先代는 1886년에 威鏡北道 鍾城에서 北間島 子洞으로 옮겨왔고, 祖父 尹夏鉉 때에 明東村에 정착하였는데 이 때가 1900년으로 父親 尹永錫씨의 나이가 6세 무렵이었고, 明東村은 당시만 하여도 민족독립운동·종교·교육의 근거지로 北間島地方 내지는 完州地方의 中心地가 되었다. 祖父 尹夏鉉 때에 基督教에 入教한 집안으로, 특히 尹東柱의 外三寸인 규암 金躍淵은 先覺者로서 明東村을 新文化운동·近代化운동의 中心地로 이룩하였던 분이다.

② 尹東柱의 幼年시절은 마을 教會堂에서 平和와 사랑을 느끼며 배우게 되었으며, 教堂의 鍾閣과 학교의 校舍와 주위의 많은 果樹木과 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자연환경— 봄의 꽃향기, 여름의 푸른 전원, 가을의 불길같은 단풍, 풍요로운 추수, 겨울의 찬란한 雪景 속에서 뛰놀며, 童心의 世界와 信仰의 世界에서 나라사랑의 世界와 詩心의 세계를 다듬고 가

² 백철, “암흑기의 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정음사, 1980) p.236.

³ 金興圭, “尹東柱論,” 창작과 비평 통권 33호, 가을호(1974, 가을), p.347.

꾸었다.

尹東柱는 8세인 1925년 4월에 明東소학교에 入學하여, 이런 대자연세계의 은총 속에서 마을친구와 학교 급우들과 지내는 가운데, 12세인 1929년 무렵부터 서울에서 보내온 <어린이> <아이생활> 등 아동잡지를 애독하였으며 13세인 1930년에는 재치있게 예쁜 솜씨로 <새명동>이란 문예지를 동사판으로 찍어서 꾸며 냈다. 14세인 1931년 3월 25일 明東소학교를 김경우·문익환·송몽규·윤영춘 등과 함께 졸업할 때에 졸업기념으로 김동환의 시집 <국경의 밤>을 받았고,⁴ 중국인의 官立學校인 파라즈(大拉子)소학교에 6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이 때에 패(佩)·경(鏡)·옥(玉)의 이름을 알았고 훗날 <별헤는 밤>에 추억으로 남아 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小學) 때 책상(冊床)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경(鏡)·옥(玉) 이런 이국소녀(異國少女)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제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별헤는 밤) 일부 1941.11.5.

③ 운동주는 主日學校 때부터 새벽頌을 즐겨 부르고, 성탄절 무렵이면 크리스마스頌도 즐겁고 기쁘게 불렀다. 이 때부터 教會에서는 신앙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十字架 고난과 復活의 所望 속에서는 조국을 빼앗기고 쫓겨온 겨레의 실향에 젖은 비애와 가난과 궁핍과 분노를 배우게 되었다. 그와 나는 못물 흘리는 어린시절 6년 동안을 함께 소학교에 다니며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으로 뼈가 끊어 갔다.⁵ 신앙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계시를 알았고, 실향민이자 망국민이 된 진실한 체험 속에서 白衣民族에 대한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의 뼈아픔의 情을 알았고, 뼈아픔의 사무침을 알았다.

이것들은 곧 明東村時代, 前半生涯의 체험이 되어 훗날 하늘의 시인, 별의 시인, 부끄러움의 시인, 저항의 시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운동주는 16세인 1923년 4월에 정든 明東촌을 떠나 龍井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이곳에서부터 脫鄉時代, 後半生涯에 든다. 전가족이 이 무렵 이곳에 옮겨 살게 되었다. 은진중학교시절의 운동주는 다재다능한 학생이었다. 학업에나 운동에나 취미생활에나 심지어는 운동복의 등판번호표의 바느질에까지 재주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때에 初期習作品으로 詩作 몇 편이 있었는데, 17세인 1934년 12월 24일에 씌어진 작품은 <삶과 죽음> <초 한 대> <내일은 없다>가 있다.

삶은 오늘도 죽음의 서곡(序曲)을 노래하였다.

이 노래가 언제 끝나랴.

세상사람은—

⁴ 任重彬, “尹東柱評傳,”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임중빈편, (재판, 서울: 인물연구소, 1979), p.181.

⁵ 文益煥, “동주형의 추억,”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정음사, 1980), p.250.

뼈를 녹여 내는 듯한 삶의 노래에
춤을 춘다.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
이 노래 끝의 공포(恐怖)를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하늘 북판에 알새기듯이
이 노래를 부른 자(者)가 누구뇨

그리고 소낙비 그친 뒤같이도
이 노래를 그친 자(者)가 누구뇨

죽고 뼈만 남은
죽음의 승리자(勝利者) 위인(偉人)들!

(삶과 죽음) 全文 1934.12.24.

이 初期作品들의 특징으로는, 주제에 있어 <삶의 모순성, 世界의 어둠과 자기희생, 鄉愁, 時代現實의 모습> 등 결핍·혼돈의 의식이 지배적이고⁶라 했다.

④ 윤동주는 18세인 1935년 9월 가을에 평양 숭실중학교에 전학하였다. 다음 해 19세인 1936년 4월에 숭실중학교가 신사참배 거부 시위로 인하여 폐교를 당하고 말았지만, 尹東柱는 이곳에서 自由와 平和를 잃어버린 채로 침울과 분노에 부대끼는 식민지조국의 풍경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뼈가 굵을 때까지 異域에서 자랐기 때문에, 祖國 땅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는 祖國 아닌 日本帝國主義의 식민지땅이었다. 尹東柱는 祖國 아닌 祖國 땅에서 또 다른 고향을 향수하게 되었고, 이 때의 詩作品 속에서는 향수와 동경을 많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

尹東柱는 다시 龍井으로 되돌아와 光明중학교 4학년에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카톨릭소년>에 '童舟'라는 筆名으로 童詩 몇 편을 발표하면서,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1936~1937년 2년 동안에 20여 편이 훨씬 넘는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⑤ 尹東柱는 21세인 1938년 4월 9일, 할아버지의 권고와 아버지의 양보로 고종사촌이자 동갑내기인 송몽규와 함께 서울에 와서,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외아들이 아버지인 아버지를 젊어서 文學에 뜻을 두어 北京과 東京에 유학하고 교원까지 지내셨지만, (중략) 생활상의 실패를 아들에게까지 되풀이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의사가 되기를 권하셨습니다.⁷ 이 때의 윤동주는 고독과 불안과 방황에 부딪혔다. 이것은 客地에서의 고독감과, 기독교적 신앙의 회의를에 맞은 근원적인 불안·사상적인 방황과, 現實認識의 급격한 확대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1938년 봄부터 1941년 겨울 12월에 이르는 연희전문학교시절의 청년 윤동주는 침울한 역사적 현장 앞에서 괴롭고 외로우면서도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였다.

⁶ 金興圭, 前掲論文, p.645.

⁷ 尹一柱, "先伯의 生涯,"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정음사, 1980), p.270.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같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새로운 길)全文 1938. 5. 10

연희전문학교시절의 尹東柱의 모습은 오뎅하게 쪽 곶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 일자로 굳게 다문 입술, 그는 한 마디로 미남이었다. 투명한 살결, 날씬한 몸매, 단정한 옷매무새, (중략) 그는 몹시 단정하고 결백했었다. 모자를 비스듬히 쓰는 일도 없었고, CCC라는 글자가 새겨진 교복의 단추를 모로 기울어지게 다는 일도 없었고, 신발은 언제나 깨끗했었다.⁸ 위유내강한 尹東柱는 말이 적고 행동도 적었지만 멋이 있었고 의연한 표정이었고 굳센 의지가 있었다 한다. 언젠가 서대문경찰서에까지 연행되어 갔다가 며칠만에 풀려 나온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다짐했고, 철저하게 排日의이어서 日本語 사용을 꼭 경계하였다. 1941년 5월계 후배인 정병욱, 운동주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갈 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부를 동문인 나에게 맡긴 것을 자당께서 고향인 경남 하동에 깊이 간수하였던 것이며,⁹ 함께 金松역에서 하숙했던 덕택으로 1941년 6월을 전후하여 많은 작품이 써어졌고, 다시 형사의 눈을 피해 하숙을 옮겨 다녔다.

방학이면 아우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운동놀이도 하고, 애국가나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 주었던 대학생이었다. 尹東柱는 산책도 좋아했고 한문도 배웠고 노래도 좋아했다. 또한 문학잡지(문장·인문평론 등)를 좋아했고, 한국고전문학전집과 현대문학전집도 탐독했고, 앙드레지이드, 뽀 발레리, 도스토포예브스키, R M 릴케, 프랑시스 쉐, 키엘케고르까지 탐독했다. 장덕순과는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며 해란강가를 거닐며 문학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東柱는 어느 때나 다정히 나를 감싸 주었다. 友愛있는 휴머니스트였다.¹⁰

⑥ 尹東柱는 24세인 1941년 12월 27일 연희전문학교 졸업과 함께 19편으로 된 시집 〈하

⁸ 정병욱, 바람을 부비고 서 있는 말들, (서울: 집문당, 1980), p.13.

⁹ 정병욱, 上揭書, p.24.

¹⁰ 장덕순, “人間 尹東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정음사, 1980) p.258.

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77권 한정부수로 출판하려 하였으나, 그 소망이 꿈에 그치고 말았다. 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곧 운동주는 시의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인간완성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는 시인이 되었고, 별을 사랑하는 시인이 되었고, 시를 사랑하는 시인이 되었다.

尹東柱는 25세인 1942년에 〈참회록〉 〈흰 그림자〉 〈흐르는 거리〉 〈사랑스런 추억〉 〈쉽게 씌어진 시〉 〈봄Ⅱ〉를 남겼는데, 〈쉽게 씌어진 시〉 이 해 6월 3일자 작품으로, 지금까지의 것으로는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이 시에서, 詩人이란 슬픈 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詩를 적어 보는 尹東柱,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尹東柱, 이 사실은 자기 혼자만이 행복할 수 없다는 아픈 자각의 표현이고, 또한 창 밖에 밤비가 속살겨려, 옥침방은 남의 나라라는 운동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을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운동주, 이 사실은 식민지민족의 분노와 저항 그리고 빈곤과 궁핍에 대한 아픈 現實認識의 표현이다.

尹東柱는 25세인 1942년에 시 〈참회록〉을 써 놓고, 일본에 건너가 東京 立教大學 英文科에 입학하였으나, 이 해 여름 龍井에 歸家하여 어머니 病患을 살펴 드리다가 다시 가을에 일본에 건너 갔다. 東北大學에 간 줄 안 兄에게서 무슨 의도에서였는지, 京都 同志社大學 英文科로 옮겼다는 전보가 오자 아버지는 좀 노여운 기색이었습니다.¹¹ 26세인 1943년 7월 여름방학 때 귀향일자까지 알려 주었던 운동주는 아니 오고 열흘 후쯤에야 차표와 수화물이 왔을 뿐이고, 이 때에 同志社大學에 있던 尹東柱와 京都大學에 있던 宋夢奎가 함께 일본형사에게 체포되어 鴨川署에 구금되었다.

尹東柱는 27세인 1944년 6월에 2년 실형언도를 받고 福岡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수감자 기록에 따르면 사상불은, 독립운동, 非日本臣民, 온건하나 西歐사상이 농후하다는 罪目이었다.¹² 그 후 집안과의 소식은 매달 初旬께 엽서가 왔고, 집에서 보내 준 英和對照 신약성서를 읽었다. 해가 바뀌어 尹東柱가 28세인 1945년 2월에, 2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져가라는 전보 한 장을 던져 주고 29년(만 28년)간을 시와 조국만을 그리며 견디었던 舍兄 尹東柱를 日帝는 빼앗아 가고 말았으니,¹³ 집에서 그의 유해를 찾으러 갔을 때, 일본인 간수의 말로는 운동주선생은 무슨 뜻인지 모르되 큰 소리를 외치고 殞命했다는 것이다. 더욱 애통스러운 것은 사망 전보를 받고 집안 어른들이 福岡에 가 있을 무렵, 東柱危篤하니 保釋할 수 있음. 만일 사망시에는 屍體를 가져 가거나 不然이면 九州帝大에 解剖用으로 제공함. 速答하시압이라는 天人共怒할 또 하나의 인세물이 배달되었다. 아, 그들도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탈을 썼는가.

⑦ 尹東柱는 1945년 2월 말에 말없이 歸國하여, 3월 초순께 눈보라치던 고향 뒷동산에

¹¹ 尹一柱, 前揭論文, p.275.

¹² 조병훈, 한국현대시사, (서울: 집문당, 1980), p.287.

¹³ 尹一柱, 前揭論文, p.266.

잠들게 되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없이 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 갔고, 다만 그의 무덤 앞에는 〈詩人尹東柱之墓〉란 墓碑가 그 가족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나, 이 봄에도 그의 무덤 위에는 파아란 잔디가 돌아날 것이다. 그 후 1968년 11월 2일 尹東柱의 모교 연세동산에도 詩碑가 세워졌다. 東柱의 시비는 연희동산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동주의 시를 아끼고 동주의 시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시비는 있는 것이다.¹⁴

2. 尹東柱의 詩世界

(1) 抵抗의 詩

윤동주는 겉으로는 '하늘'과 '바람'과 '별'들의 自然을 사랑하고 시로 읊은 詩人이었으나, 그것은 단순한 自然의 아름다움이나 自然과의 感傷的인 對話만을 읊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남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祖國의 現實狀況에서 '하늘'이고 '별'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남몰래 흐르는 뜨거운 祖國愛·民族愛에 바치는 사랑이었고 詩였다. 尹東柱의 詩世界에서는 日本帝國主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信念 속에 새로운 光明時代에의 기다림과, 식민지시대상황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의 고독과 방황, 그리고 식민지민족의 憂鬱이 詩情으로 昇華되었음을 찾을 수 있다. 日帝의 독재와 횡포 때문에 칠혹같은 시대적 憂鬱 속에 괴로워했던 젊은 尹東柱의 詩精神은 곧 이 나라 젊은이들이 함께 괴로워했던 懊惱이었다.

尹東柱의 詩作品에서는 식민지역사를 볼 수 있었고, 식민지사회를 볼 수 있었고, 식민지 청년의 민족적 저항을 볼 수 있으니, 암흑기에 있어 그는 보기 드문 레지스탕스작가 저항문학의 작가로 보기로 한다.¹⁵

抵抗의 語意는 원래 Latin語의 Pugna Certaman에서 유래된 것으로 '沮止' '對置' '미움'을 뜻했는데, 이것이 프랑스語로는 Résistance, 영국語로는 Resistance라고 한다. 이 語源이 뜻한 바와 같이 抵抗이란 어떤 대상에 맞섬, 즉 적대의식을 의미했다.¹⁶

抵抗文學이란 말은 文學用語로서는 외국의 점령군 및 그것에 아부하는 또는 의존하는 自國의 일부 권력에 항거하는 조국해방운동의 정신과 실천을 묘사하는 민족문학을 뜻한다. 그러나, 通俗的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저항하는 문학, 즉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대항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獨自的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문학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문학의 독자적인 분야를 지키지 못하고, 또는 예술로서의 문학의 순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 시대의 권력기관이나 통치자에게 추종하거나 아부하는 文學, 즉 御用文學과 대립되는 개념

¹⁴ 정병욱, 前揭書, p.24.

¹⁵ 宋敏鎬, "日帝下의 韓國抵抗文學" 日帝下의 文化운동사, 아세아문제연구소편, 日帝下의 韓國研究叢書 Ⅲ, (서울: 1973), p.364.

¹⁶ 宋敏鎬, 上揭書, p.214.

이다.¹⁷

抵抗文學은 저항하는 문학으로서 現實에 반역하여 독자적인 방법을 指向하는 문학이다. 즉 당시에 이루어진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학을 지향하는 층동에서 기인하는文學이라는 개념이다.¹⁸

이상에서 抵抗 내지 抵抗文學의 개념을 살펴 보았는데, 세계 各國의 抵抗文學을 몇 나라의 例로 들어 본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작가들이 독일군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했던, 이른바 레지스탕스문학운동이 있었고, 외국의 침략은 없었더라도 독일작가들이 自國의 非人道的인 나치정권에 대해서 저항했던, 이른바 반항문학운동이 있었고, 일본의 팽창주의 정책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졌던 중국의 저항문학운동도 있었고, 日本帝國主義의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고 한국문화말살정책·한국언어말살정책에 항거했던 우리의 저항문학운동도 있었다. <빼앗긴 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염원과 <빼앗긴 들>을 통한 自己發見을 보여 주는 이상화 뒤에 이육사·운동주로 이어지는 전통을 이룩하게 만든다.¹⁹ 뿐만 아니라 심훈은 소설가로 더 알려졌지만, 그가 남긴 몇 편의 저항시 <그 날이 오면> <오오 조선의 남아여>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고귀하고 귀중한 것이라 평가된다. 이육사의 <절정>이나 운동주의 <쉽게 써어진 시>는 훌륭한 저항시이다.²⁰ 특히 운동주는 同志社大學에 재학중에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투쟁하다가 倭地에서 순절하고 말았으니, 그의 유고시집이 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대표적 저항시집이다.²¹

尹東柱의 詩世界에 있어서 저항의식이나 민족의식을 이야기할 때, 한용운의 민족적 슬픔이 만남이 대표된 이별의 美學으로 승화된 것도 아니고, 이육사처럼 마지막 벼랑끝까지 밀린 민족의 비극을 남성적인 기상으로 극복하려고도 않고, 심훈처럼 민족감정의 격동을 즉흥적으로 내뿜는 일도 없다. 尹東柱의 詩에 있어서의 슬픔은 그가 두루 살펴 본 민족현실의 궁핍과 가난한 삶들, 그리고 자신이 뛰어넘지 못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부끄러움으로 변주되고 있다.²² 항상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운동주 詩의 부끄러움의 본질은 自己省察의 요구를 구원할 힘이 없어 피로워 하는 자기양심의 가책에서 연유되는 부끄러움인 것이다. 그리고, 尹東柱의 民族意識은 연대감에서 빠져 나와 초연할 수 없이, 혼자 안주할 수 없다는 깊은 自己省察에서 온 것이다. 민족의 비극과 불행과 궁핍은 바로 자기자신의 것이었고 이 뼈 아픈 現實自覺이 자기희생적인 순절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尹東柱의 부끄러움의 美學은 자기자신과 생활에 대한 애정있는 觀察,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理念에 대한 순결한 신망과 형식에 대한 집요한 탐구의 결과다.²³

¹⁷ 金晷鎭, "抵抗文學," 문학과 예술, 박우사, 「現代人講座」3, (서울: 1964), p.375.

¹⁸ 宋敏鎬, 前掲書, p.215.

¹⁹ 金治洙, "식민지시대의 문학," 「殖民地時代文學研究」, (서울: 깊은샘, 1980), p.21.

²⁰ 조남익, 「한국 대표시 해설」, (서울: 장학사, 1980), p.278.

²¹ 金晷鎭, 前掲書, p.384.

²² 조병춘, 한국현대시사, (서울: 집문당, 1980), p.287.

²³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1973), p.208.

詩人이란 슬픈 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보는 尹東柱는 人生이란 살기 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했다. 이 부끄러움은 尹東柱 자신으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계 하고 자각의 가장 높은 심적 계기를 이룬다. 이 부끄러움의 미학은 자기 혼자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아픈 자각의 표현이었다. 또한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옥첩방은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식민지민족의 울분과 저항과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라 했다. 이 부끄러움은 식민지의 빈곤에 대한 현실적 認識을 환기시켰다. 尹東柱의 부끄러움은 자신에 대한 욕됨으로, 미움으로, 가엾음으로 나타난다.²⁴

파란 녹이 켜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옥떨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滿) 이십 사년(二十四年) 일개월(一箇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던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²⁵

(참회록) 全文

이 시에서 젊은 尹東柱의 부끄러움은, 제1연에서는 自己發見에서 결과되었고 제4연에서는 自己省察에서 결과되었다고 본다. 결국 亡國恨에 대한 괴로움과 식민지정책에 대한 항거이자 강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 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야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²⁴ 김윤식·김현, 前掲書, pp.209~210.

²⁵ 尹東柱, 하늘과 바늘과 별과 시, 임중빈편, (서울: 인물연구소, 1979), p.131.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
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²⁶

(자화상 全文)

이 시에서도 운동주의 부끄러움은 미움에서 결과되었고 그리움에서 결과되었다고 본다.
이미 남의 나라 땅이 되어버린 조국이기 때문에 달도 구름도 하늘도 가을도, 한 사나이라도
미워졌다. 이제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또는 떠나버리고 싶지만, 돌아가다 생각하면 그때
도 내 조국 내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달도 구름도 하늘도, 한 사나이라도 가엾어지고 그리워지
고 만다. 이 가엾음과 그리움은 다시 항거가 되고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되고 말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²⁷

(서시) 全文

尹東柱에게는 <또 태초의 아침>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啓示)일까
고 기독교적인 확신을 엿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하느님 말씀으로 계시를 기다리고 사는 그
는 하늘을 쳐다 보기가 부끄러웠고 그만큼 순수했다. 더우기 모든 피압박민족을 마치고 하늘
의 별을 노래하듯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겠다고 하였으니, 여기에는 絕對사랑과 絕對意志를
지켜서 죽는 날까지 그에게 주어진 조국독립·민족해방의 길이 될 저항의 길을 향해 나아
가겠다고 불굴의 의지를 표명했다. 많은 하늘의 별은 오늘 밤에도 바람과 같은 침략자에게
농락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모
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들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
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러갔다고 외쳤던 것이다.

이 시에서도 죽음을 전제로 한 생명의 옹호와 사랑은 詩人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

²⁶ 尹東柱, 前掲書, p.17.

²⁷ 尹東柱, 前掲書, p.16.

며 참여이다.²⁸

고향(故鄉)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골계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白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白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白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故鄉)에 가자.²⁹

(또 다른 고향) 全文

凡俗의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고향'을 버리고 '또 다른 고향'을 선택한다는 것은 괴롭고 서글픈 일이다. 尹東柱의 生涯에는 고향시대도 있다면 있을 것이다. 그곳은 자기를 낳아 길러 준 北間島의 明東村이다. 명동촌에는 빗들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나, 그곳은 타향이었고 異域이었다. 가난과 울분을 달래기 위해 개척해 낸 곳이기 때문에, 결국 조국상실의 상황에서는 유랑지이고 유적지이었을 뿐 自由와 平和를 누릴 곳은 못 되었다. 운동주에게는 평양생활과 서울생활도 있었지만 이곳도 짓밟힌 채 설움에 시름하는 他國하늘과 같이 쌀쌀했다. 삶의 방황과 신앙의 회의와 민족해방의 불안에서, 한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포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들 하늘도 없는 나를 외치며 늘상 <또 다른 고향>을 그리워 하면서, 고향의 상실과 조국의 상실과 한국민족으로서의 자기존재의 상실을 뼈아프게 새겼다.

제3연의 '어둠 속'은 이런 식민지의 시대적 상황이고, '풍화작용(風化作用)'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同質化의 과정이다. '백골'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同質化에 빠질 우유부단한 변질의 모습이다. '백골을 들여다 보며 눈물짓는 것'은 '나'와 '백골'과 '아름다

²⁸ 정한모, 現代詩論, (서울: 민중서관, 1974), p.128.

²⁹ 尹東柱, 前掲書, p.32.

운 魂'이다. 그러므로, '나'는 現在的·現實的 存在狀況에 속한 '백골'과 未來的·理想的 存在狀況에 속한 '아름다운 魂' 사이에서 울고 있다. 尹東柱는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을 선택했다. 그것은 志操 높은 개가밤을 새워 어둠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志操 높은 개'는 自己凝視를 가능하게 한 어둠이라는 조건상황을 제거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拒否의 목소리인 것이다.³⁰ 尹東柱의 결단은 福岡형무소 사형대까지 오르려는 抵抗의 소리로 抵抗의 몸부림이었다.

尹東柱의 詩世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주의 詩는 自己發見과 自己省察에서 온 것으로 抵抗意識과 民族意識이 강한 抵抗詩이다.

둘째, 운동주의 詩는 조국애와 민족애에 바친 가없음과 그리움에서 온 것으로 抵抗意識과 民族意識이 강한 抵抗詩이다.

셋째, 운동주의 詩는 죽음을 전제로 한 생명의 옹호와 사랑에서 온 것으로 抵抗意識과 民族意識이 강한 抵抗詩이다.

네째, 운동주의 詩는 基督教의 十字架精神에서 온 것으로 抵抗意識과 民族意識이 강한 抵抗詩이다.

(2) 豫言의 詩

尹東柱는 抵抗詩人으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홀리겠다는 抵抗詩를 썼다. 尹東柱의 詩世界에서는 이렇게 날카로운 自己觀察로 이루어진 意志와 信念이 있는 반면에,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소리 들려 올 게외라고 祖國의 未來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과 예언의 소리도 있었다. 특히 예언의 소리는 운동주의 많은 詩作品 속에 나타나고 있다. <소년> <눈오는 지도> <돌아와 보는 밤> <새로운 길> <또 태초의 아침> <새벽이 올 때까지> <눈 감고 간다> <길> <별헤는 밤>들과 같은 作品 속에서 '봄' '꽃' '능금' '건강' '내일' '계시' '나팔소리를' '씨앗' '태양' '별' '잔디' 이러한 낱말들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尹東柱의 詩作品의 背景이 밤과 어둠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와 반대로 항상 현재의 어둠을 넘어서 '내일'과 '새벽'의 廣場으로 연결되어 있다³¹는 좋은 예가 된다.

계절(季節)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들 새겨지는 별을

³⁰ 金允植, 韓國現代作家論攷, (서울: 일지사, 1978), p.267.

³¹ 白鐵, "암흑기하늘의 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정음사, 1980), p.240.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來日)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靑春)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詩)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小學校) 때 책상(冊床)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경(鏡)·옥(玉) 이런 이국(異國) 소녀(少女)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강아지·토끼·노새·노루·프랑시스잠·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詩人)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北間島)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흠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에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의다.³²

(별헤는 밤) 全文

이 詩作品은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즐겨 읽는 운동주의 대표작이다. 어쩐지 쓸쓸하고 서글픈 詩情 속에서 우수와 향수를 느끼게 한다. 이 시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時間狀況에 대해서 추억과 사랑으로, 시와 쓸쓸함으로, 동경과 어머니로 전개되어 있다. 추억과 사랑으로는 소학교 때의 아이들과 異國少女들에게, 시와 쓸쓸함으로는 그가 늘 좋아했던 프랑시스 잠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詩와 가난한 이웃에게, 그리고 동경과 어머니로는

³² 尹東柱, 前掲書, p.34.

사랑스럽고 친진한 비둘기·강아지·노루 같은 짐승과 지금은 잃어버린 조국에게 그 때마다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보았다. 그러나, 빼앗겨 버린 자기 이름을 무엇인지 그리워 써 보지만, 빼앗긴 대지는 남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덮어 버리고,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고 어디에 한 몸 둘 하늘도 없듯이 그 이름을 부끄러워 하고 슬퍼해야 했다.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새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을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고 이름없는 이 젊은 시인 尹東柱는 豫言하고 있었다. 自己의 個人的인 運命과 더불어 가난한 이웃들과 祖國同胞들에게 生命의 躍動과 自由가 찾아오리라는 感激의 날에 대한 기다림과 믿음이 많은 詩作品 속에 나타나고 있다.³³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답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學費) 봉투(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教授)의 강의(講義)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 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칠푼(沈澗)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³⁴

(쉽게 써어진 시) 全文

³³ 구중서, 民族文學의 길, (서울: 새발사, 1979), p.213.

³⁴ 尹東柱, 前揭書, p.137.

이 시에서 운동주에게 찾아온 것은 보다 견고한 방, 감옥과 무덤이었으며, 그를 둘러싼 어둠은 죽음의 회복이 불가능한 어둠이 되었다. 운동주는 어둠에 맞선 등불로서 죽었고, 죽음으로써 고뇌를 완성한 별이 되었다.³⁵ 육첩방은 남의 나라이고, 남의 나라는 곧 '어둠'이라는 狀況이다. '어둠'은 日本帝國主義에게 당한 굴레이고 짓밟힌 탄압의 世界이다. 굴레와 탄압의 等價物인 '어둠'을 내몰아 쫓아버리면 등불을 밝혀야만 했고, 自由와 平和와 祖國光復과 等價物인 '등불'을 밝혀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역사에서 폭력과 불의를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尹東柱는 그 成果에 있어 뿐 아니라 그 限界에 있어서도 많은 教訓을 주는 人物임이 分明하다.³⁶ 未來를 내다 보지 않고서는 行動하기 어렵다. 作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行動이다.³⁷ 未來를 내다 보는 行動과 作品을 만드는 行動 속에 영위되는 人生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씩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슬픈 天命이다. 이 부끄러움과 天命에 대한 自我認識과 自我發見 때문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를 發見하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아 보는 최초의 악수 속에서,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限 일을 마치고 가야겠다는 召命意識에³⁸ 입각하여 祖國光復과 民族解放을 豫言하면서 독립투쟁하다가 그 땅에서 죽고 말았다. 尹東柱 그는 豫言의 詩人이었다.³⁹

다들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寢臺)에
가즈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계의다.⁴⁰

(새벽이 올 때까지) 全文

이 詩作品을 눈에 띄게 감싸고 있는 것은 宗教的 背景, 곧 基督教의 終末論이다. 검은

³⁵ 金興奎, "尹東柱論," 「創作과 批評」, 통권 33호, 가을호, (1974. 가을), p.660.

³⁶ 兪무용, 「民衆時代의 文學」, (서울: 창비사, 1979), p.175.

³⁷ 송옥, 「詩學評傳」(서울: 일조각, 1964), p.30.

³⁸ 金時泰, 「現代詩와 傳統」(서울: 성문자, 1978), p.272.

³⁹ 白鐵, 前揭書, p.240.

⁴⁰ 尹東柱, 前揭書, p.26.

옷 또는 흰 옷을 입고 한 침대에 누워 어둔 밤을 지새는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인 양 새벽나팔소리가 들려 올 것이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을 志操를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 <다들 살아가는 사람>을 志操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보기⁴¹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다들 죽어가는 사람>에게 '검은 옷'을 입히라는 문제성으로 보아 志操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보고, 검은 喪服과 검은 상장의 리본을 달고 슬퍼하고 괴로와 하도록 最後의 심판나팔을 불고, <다들 살아가는 사람>에게 '흰 옷'을 입히라는 문제성으로 보아, 志操를 지키고 사는 사람으로 보고, 순결과 復活의 白衣를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도록 最後의 심판나팔을 분다는 것이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이다. 이 새로운 길은 祖國光復과 민족해방의 길이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 오면조국광복을 외치는 나팔소리가 민족해방을 울리는 나팔소리가 들려오리라 豫言하고 있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외짝 떠라.⁴²

(눈 감고 간다) 全文

이 시에서도 운동주는 뜨겁게 그리고 조용하게 나라와 겨레사랑을 외치고 있다. 태양을 뜨겁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별을 조용하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尹東柱의 많은 詩作品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밤과 어둠은 암흑시대상황으로서 모든 것을 빼앗겨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 어둠을 다시 말하면, 하나는 청년기의 불안정성과 고독감 및 정신적 방황에 기인한 <個人的 어둠>이요, 다른 하나는 祖國을 잃음으로 역사적 社會的 삶의 자리를 박탈당한 <民族的 어둠>이다.⁴³

눈을 감으면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思想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옵니다라고 읊은 운동주에게서 낮과 밤의 모순과 부조화라든가 삶과 죽음의 대립과 갈등이라든가 종교의 불안과 회의를 초월해서 自己完成의 境地에 이르는 完熟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연의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에서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

⁴¹ 金興奎, 前揭書, p.656.

⁴² 尹東柱, 前揭書, p.31.

⁴³ 金興奎, 前揭書, p.674.

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의 육사의 所望을 듣는 것과 같다. 육사는 尹東柱와 함께 日本帝國主義 末期 二大 민족시인의 하나로 일컬어진다.⁴⁴

尹東柱의 詩世界를 하나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尹東柱의 詩는 個人과 國家에게 自由와 平和가 오리라는 기다림에서 온 것으로 예언적 주제가 강한 詩다.

둘째, 尹東柱의 詩는 國家와 民族에게 바치는 天命意識에서 온 것으로 예언적 약속이 강한 詩다.

셋째, 尹東柱의 詩는 復活과 永生을 신앙하는 宗教的 심판意識에서 온 것으로 예언적 信念이 강한 詩다.

네째, 尹東柱의 詩는 祖國과 民族의 將來를 약속하는 未來指向性에서 온 것으로 예언적 透視가 강한 詩다.

III. 結 論

지금까지 尹東柱의 生涯와 그의 詩世界를 찾아 보았다.

尹東柱는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나서 1945년 2월 16일에 죽었다. 그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조국광복·민족해방을 꼭 반년(半年) 앞두고 갔다. 그는 무덤 앞에 <詩人尹東柱之墓>라는 墓碑 하나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遺稿詩集만을 남기고 갔다.

尹東柱는 一平生 동안을 故鄉을 잃어버린 失鄉人으로 살았고, 祖國을 잃어버린 亡國民으로 살았다. 그는 하늘과 별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하늘의 시인이라 부르코 별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

尹東柱가 사랑한 것은 그의 조국과 민족 그리고 그 역사와 현실이었고, 운동주가 미워한 것은 그가 사랑한 조국과 민족으로부터 참과 밝음 그리고 그 역사와 현실을 빼앗아 간 帝國主義日本과 그 신봉자이었다. 운동주는 1940년대를 전후하여 역사적·시대적 狀況에 따라 '風化作用되어'가는 많은 선배 作家와 詩人들처럼 親日文學作家도 될 수 없었고 親日단체기관의 構成員도 될 수도 없었다. 이것은 사랑과 미움에 대한 강렬한 生命에의 意志로 自我를 發見하고 自我를 省察한 個人的 體驗世界를 通하여 國家民族의 共同體驗世界를 透視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尹東柱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詩作品의 世界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는 ① 운동주의 詩는 自己發見과 自己省察에서 온 것으로 抵抗意識과 民族意識이 강한 抵抗詩이다. ② 운동주의 詩는 조국애와 민족애에 바친 가없음과 그리움에서 온 것으로 抵抗意識과 民族意識이 강한 抵抗詩이다. ③ 운동주의 詩는 죽음을 전제로 한 生命의 옹호와

⁴⁴ 조남익, 前揭書, p.184.

사랑에서 온 것으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강한 저항시이다. ④ 운동주의 시는 기독교의 십자가정신에서 온 것으로 抵抗意識과 民族意識이 강한 抵抗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① 운동주의 시는 個人과 國家에게 自由와 平和가 오리라는 기다림에서 온 것으로 예언적 주제가 강한 詩다. ② 운동주의 시는 國家와 民族에게 바치는 天命意識에서 온 것으로 예언적 약속이 강한 詩다. ③ 尹東柱의 시는 復活과 永生을 신앙하는 宗教的 審判意識에서 온 것으로 예언적 信念이 강한 詩다. ④ 尹東柱의 시는 祖國과 民族의 將來를 약속하는 未來指向性에서 온 것으로 예언적 透視가 강한 詩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는 밤과 어둠으로 이루어진 抵抗의 詩·參與의 詩를 써서 抵抗의 詩人이 되었음을 입증되었고, 또 하나는 하늘과 별로 이어진 예언의 시·민족의 詩를 써서 豫言의 詩人이 되었고 민족의 詩人이 되었음을 입증되었다.

우리 한국역사의 현대사편이 많은 연구의 결과로 지엄한 권위 위에 정립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한국문학사의 현대문학사편도 여기에 금자탑을 세워 준 주인공의 정성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 글을 맺으면서, 尹東柱가 남긴 그의 童詩의 世界까지도 언젠가 따로 밝혀 볼 것을 다짐한다.

參 考 文 獻

1. 具仲書, 民族文學의 길, 서울: 새발사, (1979)
2. 金時泰, 現代詩와 傳統, 서울: 成文閣, (1978)
3. 金允植, 韓國近代作家論攷, 서울: 一志社, (1978)
4. 金현·김윤식, 韓國文學史, 서울: 민음사, (1973)
5. 文德守, 韓國現代詩論, 國語國文學叢書 20, 서울: 선명문화사, (1974)
6. 宋穰, 詩學評傳, 서울: 一潮閣, (1964)
7. 염무웅, 民衆時代의 文學, 서울: 창비사, (1979)
8. 鄭漢模, 現代詩論, 서울: 민중서관, (1974)
9. 趙南翼, 韓國代表詩解說, 서울: 장학사, (1980)
10. 曹秉春, 韓國現代詩史, 서울: 集文堂, (1980)
11. 尹東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임중빈편, 서울: 人物研究所, (1979)
12. 정병욱, 바람을 부비고 서 있는 말들, 서울: 집문당, (1980)
13. 金晟鎭, "抵抗文學," 現代人講座 3, 서울: 박우사, (1964)
14. 金治洙, "植民地時代의 文學," 植民地時代文學研究, 서울: 깊은샘, (1980)
15. 金興奎, "尹東柱論," 創作과 批評, 통권 33호, (1974. 가을)
16. 文益煥, "동주형의 추억,"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正音社, (1980)
17. 白鐵, "暗黑期 하늘의 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正音社, (1980)
18. 宋敏鎬, "日帝下의 韓國抵抗文學," 日帝下의 文化運動史, 日帝下의 韓國研究叢書 3, 서울: 민중서관, (1973)
19. 尹一柱, "先伯의 생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正音社, (1980)
20. 任重彬, "尹東柱評傳,"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人物研究所, (1979)
21. 장덕순, "人間尹東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正音社, (1980)

A Study on Poet YunDongjoo

Byung-Moon Lee

Gwang 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rrange the life of Poet Yun dongjoo and observe his poetic world through his poems.

The first part of the main discourse describes his life. He was born in Dec. 30, 1917 and died just six months before the National Independence so long cherished in his heart. He left only his collected poems "Hanulgwa Baramgwa Si Byulgwa (The Sky and the Wind and the Stars and the Poems)" and the gravestone "The Tomb of Poet Yun Dongjoo" before his tomb.

He led his life as a wanderer, being deprived of his loving motherland. He is generally known as a poet having affection for the sky, the stars and the poems. However, it was his motherland that he deeply loved. It was her history and realities that he truly loved. It was the Japanese and their followers that he badly hated. He could not betray his motherland as his senior poets, for throughout self-discovery and self-reflection he looked in the face the world of the national common experience.

The second part observes his poetic world which is form by this personal life. In short, he was a resistant and prophetic poet.

From the viewpoint of a resistant poet, his poems are written through self-discovery and self-reflection. Hence they are resistant poetry bearing strong revolt consciousness. His poems are written in the love of his people and nation. Hence they are resistant poetry bearing firm national consciousness. And his poems are written in the love disregarding the peril of his life. Hence they are also resistant poems bearing strong revolt consciousness.

From the standpoint of a prophetic poet, his poems are written in the hope that his nation will gain freedom and peace; therefore his poems are prophetic poetry strong in prophetic theme. His poems are written in the consciousness of calling (or God's will); therefore they are prophetic poetry having firm faith in the national liberation. His poems are written in the religious thought of judgement; therefore they are prophetic poems seeing through the nation's freedom.

In a word, it is certain that he wrote resistant poems of 'night and darkness' and that he wrote prophetic poems of 'the sky and the stars'

He produced great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poetry.